

미국이 더 위험해졌다

인종·종교·사회분열에 우려 고조

잇따른 총격참사 '임계점 오른 증오' 정보당국 '극단주의, 테러 최대위험'

대규모 총기참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국 사회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총기규제가 느슨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인종, 종교, 정치를 둘러싼 갈등이 증오로 치달은 정황이 체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콜로라도주 불더의 '킹 수퍼스' 식료품점에서 22일(현지시간)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에서는 경찰관 1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숨졌다. 경찰은 체포한 용의자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인데 현지 언론은 용의자가 인종주의에 불만이 컸다고 보도하고 있다. 총격범 아흐마드 알리사(21)는 시리아 출신의 이민자이자 무슬림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인터넷 매체 데일리비스트는 23일 알리사가 과거 소셜미디어(SNS)에서 이슬람 혐오에 대한 두려움을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2019년 7월 페이스북에 "만약 인종차별적인 이슬람 혐오자들이 내 전화를 해킹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평범한 삶을 살게 해준다면"이라고 썼다.

앞서 2019년 3월 뉴질랜드 백인 우월주의자가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질렀을 때 그

는 "무슬림은 총격범 한 명에 따른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슬람 혐오 산업 전체가 낳은 희생자들이었다"는 내용의 글도 공유했다. 알리사의 가족은 범행 동기로 정신질환을 주장하지만 이 면에는 백인의 인종차별이나 이슬람 혐오가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미국 사회의 주류인 백인과 소수 무슬림의 갈등은 해묵은 난제다. 2001년 국제 테러집단 알카에다가 저지른 9·11 테러는 미국에서 이슬람에 대한 공포를 확산한 결정적 사건이었다. 근래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를 옹호하고 이슬람에 극도로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정부는 '반(反)이민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을 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독교 극단주의도 미국의 큰 골칫거리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급진주의를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고 23일 지적했다. 특히 포린폴리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백인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지지하는 정책을 고수해 상황을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콜로라도 참사에 앞서 앞서 벌어진 애틀랜타 총격 사건은 인종 갈등과 무관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1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스파 및 마사지숍 3곳에서는 20대

백인이 총기를 난사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한인 4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숨졌고 희생자 중 6명은 아시아계로 드러났다. 현지 경찰은 총격범 로버트 에런 룡(21)을 체포한 뒤 아직 증오 범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곳곳에서는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와 인종차별을 멈추라"고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애틀랜타와 콜로라도 총격범은 모두 21세 젊은 남성이지만 한 명은 미국 사회의 주류인 백인이고 다른 한 명은 이슬람 지역 출신의 이민자라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문제는 애틀랜타, 콜로라도에서 벌어진 참사가 앞으로 또다시 벌어질 위험성이다. 미국 내 상존하는 인종·종교 갈등이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당국은 지난 17일 인종적 이유로 촉발된 극단주의자와 무장조직에 속한 과격주의자가 미국 내 테러 위협 중 가장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 내 인종 갈등은 최근 더 많은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증오·극단주의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16개 주요 도시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 범죄가 149% 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인종차별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는다. /연합뉴스



미중 고위급 회담 사흘 후 뱃놀이 즐기는 시진핑 22일 중국 푸젠성 난핑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이 부인 평리위안 여사(왼쪽 두 번째)와 함께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 이날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린 지 사흘 후이며,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가들이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이유로 중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일본, 첨단 반도체 국내 생산체제 구축 나서

경제산업성 민간 공동사업체 신설

일본이 해외에 의존해온 첨단 반도체의 국내 생산 체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산업정책을 관장하는 경제산업성은 첨단 반도체의 국내 생산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체를 신설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디지털 인프라 등에 관한 새로운 산업정책을 검토해 나갈 기구로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 검토 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베라카현 쓰쿠바시에 소재한 산업기술종합연구소가 이끄는 공동사업체에는 반도체 제조장비를 만드는 도쿄 일렉트론과 캐논이 중심 멤버로 참여한다.

각 업체가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 중 기판에 회로를 만드는 '전(前) 공정'과 관련해 연구·개발한 기술을 국립 연구개발법인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 생산설비의 실용화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생산 기술에서 앞서서 미국과 대만 업체의 협력도 얻을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첨단 반도체 개발 체제를 구축해 2025년까지 국내에서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내에 PC용 등 기존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점이 다수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 각종 디지털 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첨단 반도체 분야에선 일본 기업이 미국, 유럽, 한국, 대만 기업에 크게 뒤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디지털화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첨단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며 때를 놓치지 않고 연구개발 및 제조 환경 조성 과정에서 협력할 민간 공동사업체의 신설 배경을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쓰쿠바시에 첨단 반도체 조립 공정에 관한 연구개발 거점을 신설할 예정인 대만 반도체업체 TSMC에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주 1회 인슐린 주사제 나오나... 2상 시험 성공

일라이 릴리, 효과·안전성 입증

1주일에 한 번 맞는 인슐린 주사제가 매일 한 번 맞는 인슐린 주사제와 효과가 같고 안전하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

일라이 릴리 제약회사가 개발한 주 1회 인슐린 주사제(BIF: basal insulin Fc)는 2상 임상시험에서 1일 1회 인슐린 주사제인 데글루텍(degludec)과 혈당 조절 효과가 같고 저혈당 위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UPI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BIF와 데글루텍은 모두 장시간 서서히 인슐린을 방출하는 기저 인슐린 주사제다. 다만 데글루텍은 24시간에 1번 주사하는 데 비해 BIF는 1주일에 한 번 주사하는 것이 다르다. 2상 임상시험은

기저 인슐린 주사를 맞는 2형(성인) 당뇨병 환자 399명을 대상으로 32주 동안 진행됐다.

이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한 그룹은 BIF가 매주 한 번, 다른 그룹은 데글루텍이 매일 한 번 투여됐다. 임상시험 전 이들의 당화혈색소(A1c)는 평균 8.1%였다. 당화혈색소란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혈색소(헤모글로빈) 분자가 혈액 속의 포도당과 결합한 것이다.

적혈구는 일정 기간(약 120일)이 지나면 새로운 적혈구로 대체되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는 대체로 2~3개월 동안의 장기적인 혈당치를 나타낸다.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는 당화혈색소 수치는 정상범위가 5.7~5.9%이며 당뇨병 진단 기준선은 6.5%이다. 임상시험 결과 BIF 그룹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0.6%,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불더의 식료품점 '킹 수퍼스' 앞에서 한 남성이 첼로를 연주하며 22일 발생한 총격 사건의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이번 총기난사 사건으로 경찰관 1명을 포함해 10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파월 의장 "올해 물가 오르겠지만 인플레이션 유발할 정도 아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 출석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3일(현지시간) 물가가 상승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예견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는 올해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도 원하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위험은 낮다고 예상했다고 블룸버그·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특별히 크거나 지속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최선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만에 하나 과도한 물가상승으로 문제가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대처할 수단을 갖고 있다"고 파월 의장은 자신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면서 예상을 웃도는 물가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미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보다 1.7% 올라 작년 2월 이후 최대폭 상승했고,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미 국제 금리도 작년 1월 후 처음으로 1.7%를 넘어 시장에서는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 시작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감돌고 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이날 "우리는 4백만 명이 동남 전 세계에 걸쳐 인플레이션 완화 압력이 강한 세상에서 살았다"며 "일시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일회적인 지출 급증이 이런 분위기를 망가뜨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흥국화재 | 삼성생명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G | 하나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